

‘小說’이란 用語의 概念에 對하여

—東洋에서의 歷史的 用例를 中心으로—

崔

雄*

1. 序

‘小說’은 현재, 특정의 이야기구조를 인식하여 사용하는 문학상의 한 장르 이름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막상 이러한 의미로 ‘小說’이란 用語를 사용할 때 매우 모호함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小說이란 用語가 가리키는 對象이 西歐의 fiction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novel, romance, short story 등을 포괄함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의 어느 하나만을 뜻하는 것인지 확연하지 못한 現下의 實情¹⁾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점은 ‘小說’이란 用語 자체가 우리 文學史上的 文學用語

* 國文學科 同門(國文學專攻)

- 1) 현재 우리의 대부분의 文學概論書나 理論書에서는 fiction도 ‘小說’, novel도 ‘小說’ 등으로 번역·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N. Frye의 “사람들이 걸리버 여행을 fiction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만일 그것이 fiction이라면 類概念으로서의 fiction과 그 類概念中の 種概念으로서의 novel과의 구별이 생긴다. (But surely everyone would call it fiction, and if it is fiction, a distinction appears between fiction as a genus and the novel as a species of that genus. 引用文中의 it은 Gulliver's Travels : 筆者註. N. Frye : The Four Forms of Fiction, The Theory of the Novel edited by P. Stevick p. 31.)”는 견해가 신빙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우리는 類概念으로서의 fiction과 種概念으로서의 novel을 구별해야 한다. 기실 N. Frye는 fiction을 구성하는 네가지 형태로서 novel, romance, confession, anatomy를 들고 있다. 따라서 fiction도 ‘小說’, novel도 ‘小說’ 둘로 번역·표기한 기존의 태도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역사상의 ‘小說’이란 用語의 用例를 토대로 하여 개념정리를 한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로 정착된 것이 최근의 일로써, 그것이 역사적인 用例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을 토대로 한 정착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데²⁾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歴史的 用例가 엄연히 存在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적어도 文學史上의 用語로 정착되자면 그 歴史性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歴史가 인간생활을 토대로 한 事象의 歴叙的 記錄일진대, 個個 事象의 계승적 공통성은 곧 傳統이 될 것이며, 傳統에 대한 인식의 如何가 史觀을 결정지워 주는 것이라면, 역시 史觀을 基底로 하는 文學史도 곧 文學傳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傳統性 곧 歴史性을 가볍게 본 구분별한 用語의 사용은 인식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小説’이란 用語의 사용 역시 그 歴史的 用例의 傳承의인 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小説’이란 用語의 概念을 확연하게 함에 목적을 둔 本稿의 論述 방법은 自明한 것이 된다.

① 東洋에서의 ‘小説’稱號의 歴史的 用例를 살펴 어떤 構造로 된 작품을 ‘小説’이라 불렀는가를 살핀다.³⁾

② ‘小説’이라 불리워진 作品들의 공통된 屬性을 살핀다.

①과 ②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곧 ‘小説’이란 用語가 지니는 우리 東洋에서의 歴史性을 파악한 의미론적 概念整理가 이룩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아울러 그 본질 究明 및 西歐의 그것들과의 照應을 期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2) ‘小説’이란 用語가 우리 文學史上의 文學用語로 정착됨은 ‘新小説’이란 말이 등장됨에서 비롯된다고 보겠는데, ‘新小説’이란 用語가 등장됨이 全光鏞 교수의 주장대로 出版社 측에 기인하든(新小説研究), 李在統 교수의 주장대로 新聞社 측에 기인하든(開化期小説研究), 營利性을 추구하는 학문의 적인 단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意味論的 考察을 토대로한 用語의 사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小説’ 칭호와 이에 대한 언급을 문제삼을 것이다. 東洋문화의 중심권(漢字文化圈)을 생각할 때, 중국과 한국의 경우를 대표로 해서 東洋이라 불리 무방할 것이다.

2. 作品 指稱으로서의 ‘小説’稱號의 起源

白雲小説이 우리 한국에서 ‘小説’이란 말이 쓰인 최초의 用例였다면⁴⁾, 李奎報 스스로가 이 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⁵⁾ 그 年代는 高麗 高宗(1214년 登極: 李奎報의 주요 활동시기는 주로 高宗時代였다)時期, 즉 13C 초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 때는 벌써 중국의 宋末·元初에 해당되는 時期로 文學史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唐의 傳奇的인 作品, 宋의 傳奇·志怪·評話 등의 작품이 성행내지 등장되던 時期였으며, 또 사실 중국에서는 훨씬 이전에 ‘小説’이란 말이 쓰였으므로 ‘小説’이란 말의 用例의 起源에 대한 의미론적 판단에 관한 한 이 白雲小説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小説’이란 말의 사용시기에서 그 起源을 점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漢文을 중심으로 한 東洋의 本 문화권을 고려할 때 타당성을 지니리라고 본다.

현재, 중국에서 ‘小説’이란 稱號를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莊子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⁶⁾이니 다음의 典據가 곧 그것이다.

무릇 낚싯대와 낚시를 들고 개울이나 도랑에 가서 작은 고기들을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들로서는 큰 고기는 끝내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 4) 현재까지 白雲小説 이전의 다른 文獻上에서 ‘小説’稱號의 用例를 찾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白雲小説이 우리 한국에서 ‘小説’의 2字가 쓰인 最初의 用例였음은 이미 學界의 定說로 되어 있다. 李家源 교수는 白雲小説에 대하여 “李奎報의 著이다. 우리 文學史上에 ‘小説’의 二字가 이에서 처음 나타났으나 이는 역시 雜錄을 이름이었다. (韓國漢文學史 p. 145.)”고 밝힌 바 있다.
- 5) 白雲小説 자체가 지금 完本으로 남아 있는 형편이 못되므로 李奎報 스스로 白雲小説을 자기의 著述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後世에 他人이 散佚된 遺文을 모아 白雲小説이라 불렀는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 6) 魯迅은 그의 中國小說史略에서 “小説의 名稱은 옛날 莊周의 ‘小説을 지어 서 利祿을 求한다.’ (莊子·外物)라고 말한 곳에 나타난다.”고 밝혔고, 郭箴一도 中國小說史에서 “中國 ‘小説’ 兩字最早見於記載爲莊子外物篇 ‘飾小説以于縣令其於大道亦遠矣’”라고 밝히고 있다.

小説을 꾸며가지고 한 지방의 守令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 따위는 지대한 道에 눈뜬 사람에 비길 때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⁷⁾

그러나 文學 장르로서의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서의 起源의 用例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는 이 莊子에서 사용한 ‘小説’이란 稱號는 아무런 意義를 지니지 못한다. 즉 莊子에서 말한 ‘小説’이란 어떤 著述이나 작품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학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儒家를 그 특유의 寓言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은 孔子가 자기의 학문의 바탕을 이루는 思想을 구현하고자 천하의 제후들을 찾아 순방하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확연해진다. 따라서 莊子에서 말한 이 ‘小説’은 어떤 著述이나 작품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고 보잘 것 없는 학문 정도의 뜻으로 쓰인 말임이 분명하다.

後漢初의 桓譚과 班固에 이르러 ‘小説’이 비로소 어떤 著述이나 작품을 지칭하고 있는 用例를 우리는 찾아 볼 수 있으니 다음의 典據들이 곧 그것이다.

小説家は 토막토막의 작은 일이나 傳說을 모아 가까이 譬喩시켜 이로써 短文을 짓는데 거기엔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불만한 辭句가 있다.⁸⁾

小説家라는 것들은 대개 稗官에서 나온 것으로 巷間的의 이야기들과 길에서 죽어 들은 것들을 지어 놓은 것이다.⁹⁾

이상의 典據들은 특히 ‘小説’이 文學上的 어떤 종류의 작품을 指稱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이들에 따르면 ‘小説’은 事를 記述하는 것이되 特定作者¹⁰⁾가 있으며 說話나 野史와는 區別된다. 즉 ‘小説’은 巷間的의 작은 이야기들을 자료로 해서 所造되었거나 譬喩되어서 이룩

7) 夫搗竿果 趨灌瀆 守覬蚶 其於得大魚難矣 飾小説以于縣令 其於大達亦遠矣 (筆者加點) (莊子 外物篇 三)

8) 若其小説家 合叢殘小語 近取譬喩 以作短書 治身理家 有可觀之辭 (桓譚：新論, 李善 注, 文選三十一)

9) 小説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 (班固：漢書, 藝文志十)

10) 小説이 稗官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라 해도 稗官의 作意性이 어느 정도 加味된다고 볼 수 있어, 說話가 民衆이라는 집단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실에 비하면 特定作者라 하여 무방할 것이다.

되는, 다시 말해서 作意性이 가미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說話나 野史와는 구별되는 것을 ‘小說’이라 불렀던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說話와의 구별

桓譚이나 班固가 ‘小說’을 合叢殘小語에 譬喩로써 作短書한 것, 稗官出身이 街談巷語・道聽塗說을 所造한 것으로 인식했을 때, 殘小語・街談巷語・道聽塗說은 곧 說話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 ‘小說’은 이 說話에 個人的 作意性이 가미된 것이 되므로 說話自體와는 구별된다.

② 野史와의 구별

桓譚이나 班固가 史家的 立場에서 ‘小說’을 말하였고, 또 稗官이란 말이 “왕이 지방의 풍속을 알고자 하여 稗官을 두고 그를 이렇게 불렀다(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 使稱說之)”라는 辭海의 풀이대로 史官의 보조적 기능을 지닌 判官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저들이 말하는 ‘小說’이란 正史에 대립되는 일체의 野史를 指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니게도 한다.

그러나, 설령 ‘小說’이 전적으로 國乘의 羽翼으로서의 野史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班固가 漢書 藝文志의 諸子略에서 十家를 收錄하면서 “可觀者는 九家”라 하여 ‘小說’을 그 可觀者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은 저들이 ‘小說’을 野史와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본다면 ‘小說’은 作意性을 지녔고 또 같은 이야기구조라도 史의 體系의 記述과는 구별되는 요소를 지녀 곧 文學上的 작품을 指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歷史上에서 그 根源(小說稱號의 根源: 筆者註)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自古로 文學方面에 關한 것을 討論評斷한 것은 本來부터 亦是 史官의 職責이었기 때문이다.”¹¹⁾라고 한 魯迅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東洋에

11) 魯迅 著, 丁來東, 譯: 中國小說史, p. 11.

서의 文學上의 작품 指稱으로서의 ‘小說’의 起源은 桓譚과 班固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3. ‘小說’稱號의 歷史的 用例로 본 그 범주

(1) 虛構的인 短篇作品

중국의 경우, 桓譚이 “以作短書”라 했을 때 그것은 短文으로서 短篇的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魯迅이 밝힌 대로, 班固에 의하면 ‘小說’의 內容이,

班固의 注에 依하면 諸書(班固가 小說類에 收錄하였던 作品: 筆者 註)는 大概 或은 古人에 依托하고 或은 故事를 記錄한 것으로 사람에 依托한 것은 子에 가까우면서도 淺薄하고, 事를 記錄한 것은 史에 가까우면서도 荒唐無根한 것이 라 한다.¹²⁾

라고 한다면 ‘小說’은 꾸며진 이야기 곧 虛構的인 作品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長篇的인 구조를 지닌 演義가 宋末·元代에야 등장·성행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小說’이란 用語는 원래 虛構的인 短篇作品을 指稱한 것 같으니, 이러한 사실은 古代人들의 의식의 단순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일찌기 虛構的인 短篇作品으로서 魏·晉·南北朝時代의 神怪類, 唐의 傳奇類, 宋의 志怪類·傳奇類·評話類 등이 演義類 이전의 小說의 祖宗을 이루었으며, 明의 古今小說, 淸의 聊齋志異 등이 그 전통을 이어 받는데, 사실 神怪다, 傳奇다, 志怪다 하는 구별에 있어서는 형태나 구조상의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내용에 따른 약간의 구별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어, 傳奇의 체재로서 대표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를 이룩한다.¹³⁾

12) 上揭書, p. 13.

13) 孔在錫: 中國文學概要, pp. 91~104. 참조

그러면 孔在錫 교수의 견해를 빌어 傳奇의 체제를 보자.

- ① 短篇의이고 文言으로 되어 있다.
- ② 每篇이 幾百字 或은 一二千字이다.
- ③ 每篇은 하나의 故事를 叙述하고 神仙·妖怪·才子·佳人·武士·狹客을 主要人物로 하고 있다.
- ④ 每篇中の 故事는 臆造한 것이 많다.¹⁴⁾

이로써 보자면 傳奇는 ①②③으로 볼 때 短篇의이고, ④로 볼 때 作意的이며 虛構的인 作品임에 틀림없다.¹⁵⁾

그렇다면 실제로 傳奇로 대표되는 이러한 短篇的인 作品들을 ‘小說’로 指稱하였던가가 문제될 것이니 그 典據는 다음과 같다.

齊(南北朝時代)의 殷芝가 ‘小說’이란 명칭이 붙은 단행본으로 된 최초의 책인 ‘小說’ 三十卷을 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周에서 隋을 거쳐 南齊까지의 舊聞軼事·志怪雜事를 모은 것이라 한다.¹⁶⁾

宋의 歐陽修가 新唐書를 편찬할 때, 그 藝文志 小說類中에 원래 史部 雜傳類에 속해 있던 神怪類와 因果類 등을 첨가했다. 물론 傳奇類는 원래부터 小說類에 속해 있었다.¹⁷⁾

明의 胡應麟은 少室山房筆叢 二十九篇에서 ‘小說’을 6종류로 구분하였으니,

- 一曰志怪：‘搜神’‘述異’‘宣室’‘酉陽’之類 是也
- 一曰傳奇：‘飛燕’‘太真’‘崔鶯’‘霍玉’之類 是也¹⁸⁾

와 같은 것들이다.

14) 上揭書, p. 93.

15) 故事의 源이를 辭海를 참조해 보면, “猶言舊事 史記 三王世家 ‘竊從長老好, 故事者. 取其封策書, 編列其事而傳之’, 漢書 劉向傳 ‘宣帝循武帝故事’”로 되어 있어 事實的인 舊事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臆造된 故事란 곧 虛構性을 지닌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6) 孔在錫：前揭書, p. 91. 참조

17) 魯迅：前揭書, p. 15. 참조

18) 上揭書, p. 16. 再引用

清나라 乾隆年中에 紀昀이 總執한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小說’을 三派로 구분하였는데,

그 流別을 더듬어 보면 모두 三派가 있다. 그 하나는 雜事를 敘述하고, 그 하나는 異聞을 記錄하며, 또 그 하나는 瑣語를 綴輯한 것이다.¹⁹⁾

가 곧 그것이며, 이에 따르면 前記한 明의 胡應麟이 志怪類에 넣었던 ‘搜神記’는 異聞之屬이며, ‘酉陽雜俎’ 및 傳奇類들은 瑣語之屬에 해당된다.²⁰⁾

따라서 以上の 典據로 볼 때, 傳奇·志怪類들은 ‘小說’이라 稱할 때 반드시 그것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演義類 등장 이전의 傳奇·志怪類들의 小說로서의 祖宗的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또 宋代의 俗文으로 된 評話本인 ‘京本通俗小說’²¹⁾의 체제도 역시 여러 편의 虛構的인 短篇作品을 모은 短篇集이란 사실을 참고로 한다면, 중국에서 ‘小說’이란 用語의 對象은 본래 虛構的인 短篇作品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우리 한국의 경우, ‘小說’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여 책명을 삼은 것이 白雲小說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白雲小說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原典의 어느 정도 부분에 해당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현존의 체제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경우 ‘小說’이란 用語의 對象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현존하는 十數篇의 各篇들이 짝짝맞은 이야기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점을 중시하여 白雲小說이라 命名하지 않았나, 따라서 중국의 경우와 마

19) 迹其流別 凡有三派 其一敘述雜事 其一記錄異聞 其一綴瑣語也(上揭書, p. 17. 再引用)

20) ……‘搜神記’ 二十卷……右小說家類 異聞之屬……‘酉陽雜俎’……右小說家流 瑣語之屬(上揭書, p. 17. 再引用)

21) 京本通俗小說은 본래 몇 卷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作者 또한 未詳이다. 지금은 卷十~卷十六까지 每卷 一篇으로 七篇이 남아 있다. 현존 작품의 체제는 대부분이 먼저 閑話나 혹은 다른 일을 敘述하다가 나중에 本故事로 들어가는데 내용은 대개 志怪的인 것 같다. (上揭書, pp. 145~148. 참조)

찬가지로 ‘小說’이란 말이 虛構의인 短篇作品을 指稱하고 있지만 闕하는 가능성을 지니게는 한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文獻上의 典據를 살펴 보자.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우리 나라에는 小說이 적다. 오직 高麗의 大諫 李仁老의 破閑集, 拙翁·崔滋의 補閑集, 益齋·李齊賢의 樸翁稗說, 本朝의 仁齋·姜希顔의 養花小錄, 四佳·徐居正의 太平閑話, 筆苑雜記, 東人詩話, 晉山·姜希孟의 村談解頤, 東峯·金時習의 金鰲新話, 李陸의 靑坡劇談, 虛白堂·成倪의 慵齋叢話, 秋江·南孝溫의 六臣傳, 秋江冷話……등이 세상에 行한다.²²⁾

고 했다.

李晬光은 芝峯類說에서,

우리 朝鮮에는 200년 동안에 傳하는 著書가 매우 적어서 역시 小說도 불만한 것이 몇개 없다. 徐居正의 筆苑雜記, 東人詩話, 李陸의 靑坡劇談, 金時習의 金鰲新話, 南孝溫의 秋江冷話……같은 것들로 刊行되지 않은 것도 역시 많다. 영구히 묻혀 버림을 두려워하여 이에 적어둠으로써 참고에 대비한다.²³⁾

고 했다.

柳夢寅은 於于野談序에서,

금년 봄에 중국에서 새로히 小說 70篇을 刊行하였는데 ‘鍾離葫蘆’라目했다. 西伯이 보고한 바로는 그 내용이 음란하고 兇惡스러워 차마 보고 듣지 못하길다고 한다.²⁴⁾

22) 東國少小說 唯高麗李大諫仁老破閑集 崔拙翁滋補閑集 李益齋齊賢樸翁稗說 本朝姜仁齋希顔養花小錄 徐四佳居正太平閑話 筆苑雜記 東人詩話 姜晉山希孟村談解頤 金東峯時習金鰲新話 本陸靑坡劇談 成虛白堂倪慵齋叢話 南秋江孝溫六臣傳 秋江冷話……行于世(魚叔權：稗官雜記 卷四, 大東野乘 卷一 收錄)

23) 我朝二百年間 著書傳世者甚罕 而小說之可觀者亦無幾 如徐居正筆苑雜記 東人詩話 李陸靑坡劇談 金時習金鰲新話 南孝溫秋江冷話……其未刊行者亦多 恐久而湮沒也 今錄于此 以備考云(李晬光：芝峯類說 卷七)

24) 今年春新刊中原書七十小說 目曰鍾離葫蘆 自西伯所來 淫褻不忍觀聞(柳夢寅：於于野談序)

고 했다.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세상에서는 稗官小說을 전부 徵驗함이 없는 것으로 귀결시키나 역시 이는 俗見이다. 혹은 그 중에는 史를 보충할 만한 것이 있으니 虞初의 酉陽雜俎에 所錄된 것이 이것이다.²⁵⁾

또 같은 책에서,

桃花扇·紅樓夢·續紅樓夢·水滸志·列國志·封神演義·東遊記 기타 小說인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蒲松齡이 저술한 聊齋志異라는 것이 있는데 稗官小說中에서도 가장 불만한 것이다.²⁶⁾

라고 했다.

이로써 보자면 柳夢寅과 李圭景의 경우는 앞서의 중국의 경우로 보아서 虛構의인 短篇作品 指稱으로서의 ‘小說’에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魚叔權과 李晔光의 경우에 ‘小說’로서 指稱된 것들이 현대적 의미로 보아 隨筆 또는 雜錄의인 것들임에 문제가 있다.

사실, 이제까지의 各種 小說史나 小說論의 업적들에서도 이 점이 문제되어 저들의 견해를 廣意의 小說概念이니 하여 궁색한 변을 달았고, 또한 저들 작품들을 ‘小說’의 범주에 포함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저들이 왜 언뜻보아 隨筆 또는 雜錄의인 것들을 ‘小說’이라 指稱하였는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 歷史의인 用例를 토대로 한 ‘小說’의 개념을 정확히 期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筆者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魚叔權이나 李晔光도 虛構의인 短篇作品 指稱으로서 前記한 것들을 들고 ‘小說’이란 말을 사용했다

25) 世以稗官小說專歸無徵者 亦爲俗見也 或有可補史牒者 虞初酉陽之所錄者是已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稗官小說亦有徵補辨證說)

26) 桃花扇 紅樓 續紅樓 水滸志 列國志 封神演義 東遊記 其他爲小說者 不可勝記 有聊齋志異 蒲松齡著 稗官中最爲可觀 (上揭書, 小說辨證說)

고 본다.

첫째, 破閑集·補閑集·太平閑話·村談解頤 등 저들이 거론했던 著述들이 一貫되는 이야기로 된 作品이 아니라 잘막잘막한 별개의 이야기들을 모아 수록해 놓은 것이되 이야기 每篇마다에는 반드시 事件이 등장한다. 특히 東人詩話로 대표되는 詩話들에 있어서도 단지 詩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詩에 얽힌 사건들이 먼저 叙述되고 詩評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短篇의이며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음으로써 저들이 그것들을 '小說'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둘째, '小說'로서 고려조의 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 등을 들었던 魚叔權이 一然의 三國遺事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三國遺事가 이야기체로 叙述된 野史임은 主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著者 一然이 忠烈王 때의 인물이어서 시기적으로 破閑集의 著者 李仁老나 補閑集의 著者 崔滋 등 보다는 약간 후대의 인물이므로, 만일 三國遺事의 이야기 叙述 체제가 破閑集 등의 그것과 동일하였다면 魚叔權이 '小說'의 나열에서 그것을 제외하였을 까닭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魚叔權이 叙述 체제를 구별하여 三國遺事는 史實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에 野史로, 破閑集 등은 史實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小說'로 각각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示唆해 준다. 기실, 양쪽을 참조해 보면 三國遺事는 이야기를 통한 史實의 증명에 주안점을 두었고, 破閑集 등은 이야기 자체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가 있다.

셋째, 저들이 현재 '小說'의 始祖로 간주하고 있는 金時習의 金鰲新話²⁷⁾와 破閑集 등을 같이 '小說'로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金鰲新話와 餘他的 것들이 이야기 성질상 무엇인가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

27) 張德順 교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李朝의 '金鰲新話' '花史'를 비롯하여 燕岩·滄江 等の 漢文小說들은 모두 中國의 傳奇의 영향을 받은 傳奇體 小說들인 것이다.(國文學通論, p. 197.)"라고 하여 金鰲新話를 傳奇體 小說로 規定한 바 있다.

음을 반영한다.

(2) 虛構的인 長篇作品

중국의 경우, 長篇的인 구조를 지닌 작품은 宋代 話本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元代的 演義類에서 비롯된다. 演義는 애초에 講史로 指稱되었는데²⁸⁾, 이 때의 講史는 앞에서 論證된 虛構的인 短篇作品 指稱으로서의 ‘小說’과는 구별되어진 것 같으니, 魯迅은 講史와 ‘小說’의 체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講史의 體裁는 史實을 歷叙하며 이에 虛辭를 섞는 것이고, 小說의 體裁는 한 故事를 講說함에 있어서 當場 그 結局을 아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⁹⁾

이로써 보자면, 講史는 史實의 歷叙에 虛辭가 가미된 것이고, ‘小說’은 結局中心의 故事講說로서 각각 虛構的인 長篇作品임과 虛構的인 短篇作品임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講史 즉 演義는 그 쓰인 言語가 宋의 話本에서 영향받은 관계로 民衆言語인 白話文이고, 三國志演義의 예에서 보듯이(이를테면 正史와는 다른 正統問題 등) 作意性이 심히 가미되어 歷史를 歪曲시킨다는 이유로 해서인지 폄시되어 著述 분류에 있어서도 별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元末·明初에 이르러 그것들이 지닌 흥미성으로 인하여 民衆 사이에 크게 성행되자 결국 ‘小說’의 부류속으로 통합되는데, 魯迅에 의하면 講史와 ‘小說’이 아울러 ‘小說’로 불리워진 사실이 명백해진다.

小說部流에는 ‘拍案驚奇’ ‘醉醒石’의 類가 있고 講史部流에는 ‘列國演義’

28) 吳自牧은 ‘夢梁錄’에서 說話(현대적 의미의 說話가 아니고 이야기꾼에 의하여 읽혀지는 臺本에 의한 이야기이다: 筆者註)를 小說, 談經, 講史書, 合生으로 나누고 講史書의 性格에 대하여 “講史書란 것은 ‘通鑑’과 漢·唐等 歷代書史文傳에 있는 興廢戰爭의 일을 講說한 것을 말한다(講史書者謂講說通鑑漢唐歷代書史文傳興廢戰爭之事).”라고 하였다. 따라서 魯迅은 ‘五代史平話’를 이 講史의 체제로 보고 있는데 ‘五代史評話’는 곧 演義類이므로, 이로써 보자면 演義는 講史로 불리워진 것 같다. (魯迅: 前揭書, pp. 140~141. 참조)

29) 上揭書, p. 141.

‘隋唐演義’의 類가 있으나 오직 世間에서는 이 二科에 대해서 漸漸 다시는 嚴別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드디어는 둘 다 ‘小說’로써 通名을 하게 되었다.³⁰⁾

기실, 明의 王圻이 지은 ‘續文獻通考’, 高儒가 지은 ‘百川書志’, 淸初의 錢曾이 지은 ‘也是園書目’ 등에서 ‘小說’로서 三國志演義와 水滸傳 등을 거론하고 있음을 보면³¹⁾ 魯迅의 見解는 믿어도 좋다고 하겠다.

이로써 演義類의 등장과 함께 ‘小說’은 虛構의인 長篇作品도 指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 역시 虛構의인 長篇作品 指稱으로서의 ‘小說’用例들 각종의 典據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옛 小說은 뚜렷하게 일컬을 만한 것으로 西遊記와 水滸傳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여기에 열거한다면 列國 때로부터 東西漢·齊魏·五代·唐·南北宋에 이르기까지 각각 모두 演義가 있는데……³²⁾

라고 했다.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東坡志林’에서의 三國志評話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면서, 三國志演義의 作者가 羅貫中임을 밝히고 계속하여,

陳壽의 三國志,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 講說한다 하여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通俗小說을 짓는 까닭이다.³³⁾

고 하였다.

金春澤은 北軒居士集에서,

30) 上揭書, p. 150.

31) 上揭書, p. 18. 참조

32) 洪萬宗: 旬五志 卷下(乙酉文庫 65, p. 261.)

33) 今以陳壽史傳 溫公通鑑 聚衆講說 人未必有出涕者 此通俗小說之所以作也 (金萬重: 西浦漫筆 卷下)

西浦는 俗諺으로 小說을 쓴 것이 허다하다.³⁴⁾

고 하였다.

李德懋는 靑莊官全書에서 ‘小說’의 폐해를 論하면서,

내가 일찌기 小說書目에서 開關演義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비록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명칭만 보아서도 怪異함이 지극함을 알겠다. 내가 어렸을 때에 10餘種을 읽어 보았는데 모두가 男女의 風情을 내용으로 하여 閭巷의 俗言으로 되어 있었다. (中略) 오직 이 小說이라는 것은 위로는 黨論이나 淸談·詩律에 이르러지 못하고, 가운데로는 稗官野談에도 못 미치고, 아래로는 傳奇·志怪에도 미치지 못한다.³⁵⁾

고 하였다.

安鼎福은 順菴雜錄에서,

내가 중국에서 판각된 小說을 보니·四大奇書라는 것이 있었다. 三國志·水滸傳·西遊記·金屏梅가 그것이다.³⁶⁾

고 하였다.

李圭景은 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桃花扇·紅樓夢·續紅樓夢·水滸志·列國志·封神演義·東遊記 기타 小說인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고 蒲松齡이 저술한 聊齋志異라는 것이 있는데 稗官 小說中에 적도 가장 불만한 것이다.³⁷⁾

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자면, ‘小說’로서 指稱된 작품들이 三國志演義·列國演義 등의 각종 演義類와 紅樓夢·西遊記·東遊記 등이므로 우리 한국에서도

34)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金春澤：北軒居士集 卷十六)

35) 余嘗見小說書目中 有開關演義 雖不開見 觀其名目 怪斯極矣 余幼時看十餘種 皆男女風情 閭巷鄙諺……惟此小說 上不及黨論淸談詩律 中不及稗官野談 下不及傳奇志怪 (李德懋：靑莊官全書，卷之五，嬰處雜稿一，齋居士識)

36) 余觀唐板小說 有四大奇書 一三國志也 二水滸傳也 三西遊記也 四金屏梅也 (安鼎福：順菴雜錄)

37) 註 26과 同一

‘小說’이 虛構的 長篇作品도 뜻한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이상의 典據들이 대부분 ‘小說’이 指稱하는 대상으로서 虛構的 長篇作品을 들고 있고, 특히 李德懋의 경우에는 ‘小說’과 稗官野談 및 傳奇·志怪의 作品을 구별하여 비교하고 있음에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혹시 朝鮮朝後期³⁸⁾에 이르러서는 ‘小說’이 전적으로 虛構的인 長篇作品만을 가리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筆者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에서 든 典據들 중 가장 연대가 늦은 것은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이다. 그런데 이에서는 ‘小說’로 지칭된 것들로 虛構的 長篇作品인 水滸志·列國志·紅樓夢들 뿐만 아니라 聊齋志異 같은 短篇集이 아울러 존재하고 있다.

둘째, 李德懋의 경우, ‘小說’이 지녀야 하는 構造面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기 보다는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유익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면에만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실, 그는 “옛날에는 稗官을 두어 野談을 모으게 하였는데 비록 짜잘한 이야기를 많이 모았을지라도 君子들이 취할 것이 있었다. 傳奇·志怪는 博物者들이 취한 것이다.”³⁹⁾라고 하여 文章의 載道的인 면만을 중시하여 분류를 하였던 것이다.

셋째, 우리 한국의 경우, 稗官이란 직책을 공적인 관직으로 두었던 사례가 없다. 이것은 虛構的인 短篇作品으로서의 傳奇나 志怪類의 발달이 초래될 수 없었을 가능성을 示唆한다. 金鰲新話 등 몇 편을 제외하

38) 洪萬宗·金萬重 등이 여기에 引用된 人物 중에서 가장 연대가 빠르나 仁祖·肅宗代를 넘지 못한다. 壬辰亂을 分水嶺으로 朝鮮王朝을 兩分한다면 역시 後期에 속할 것이다.

39) 古置稗官以收野談 雖多叢瑣 君子有取 傳奇志怪 博物者取之 (李德懋: 前揭書, 前揭文.)

고는 불만한 작품이 수적으로 빈약한 것은 這間의 사정을 잘 반영한다. 따라서 ‘小說’의 폐해를 주장하려고 하여 개진된 앞에서 든 典據들의 대부분에서 이런 수적으로 빈약한 虛構的인 短篇作品들을 문제삼을 필요성이 없었겠기에 그것이 거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실 壬辰·丙子亂을 계기로 우리 한국에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의 演義類 小說의 영향을 받아 국문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크게 성행하게 되자 그 폐해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小說’에 대한 공박론이 크게 일었던 것이다.⁴⁰⁾

4. ‘小說’의 屬性

(1) 作意性

東洋에서의 ‘小說’ 칭호의 역사적 용례를 통하여 ‘小說’의 범주를 살피은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小說’이 作意性和 虛構性을 그 주요 屬性으로 하고 있음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論述의 초점을 두어 좀더 세밀히 고찰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이야기구조를 공통의 특질로 하는 敘事文學의 모든 장르에서 이것들은 餘他的 장르에 대해 ‘小說’의 독특성을 구별지워 주는 제일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40) 李德懋는 “내가 어렸을 때에 小說 10餘種을 보았는데 모두가 男·女의 風情을 閨巷間的 鄙諺으로 나타낸 것으로 한때는 재미가 있었으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을 안 연후에는 중오하는 마음이 점차 생겨서 별만 재미가 없었다(余幼時 看十餘種 皆男女風情 閨巷鄙諺 有時悅目 實知其真無是事 然後憎惡之心漸加 頗無滋味 上揭書, 上揭文).”라고 했다. 閨巷間的 鄙諺으로 나타냈다는 것에서 李德懋가 본 小說이 國文小說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演義類와 동질인 작품이 壬辰錄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國文小說이 중국의 演義類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國文小說의 등장이 시기적으로 보아 三國志演義나 水滸傳 등이 수입되어 읽혀진 이후임으로 창작상의 자성을 이들 演義類에서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이야기구조를 띤 하나의 素材가 作意性에 의해 구성됨은 곧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정한 작자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곧 창작성을 뜻하게 되는 것이니, ‘小説’이 같은 이야기구조를 갖춘 巷間의 說話 自體⁴¹⁾와는 구별되는 문학으로서의 자격을 결정지워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小説’이 과연 作意的으로 구성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作意性의 本質은 무엇인가 하는 면이 또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巷間의 素材의인 이야기를 가지고 “所造”한 바로서의 ‘小説’(班固), 역시 素材가 되는 자잘한 일을 譬喩시킨 ‘小説’(桓譚) 등의 作品 指稱으로서의 ‘小説’의 기원적인 用例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하게 素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 巷間의 이야기 곧 說話와는 구별되고 있음을 이미 살펴 본 바 있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요소가 ‘小説’은 곧 稗官이든 누구든 특정의 작자에 의해서 재구성된 이야기, 곧 作意的인 作品이라는 데에 있음이 쉽게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면 계속하여 ‘小説’이 특정작자에 의한 작품, 곧 개인의 작품이라는 典據를 찾아 보자.

中國의 紀昀은,

唐宋 이후 作者가 더욱 많아져(이하 생략)⁴²⁾

라고 했다.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明나라 末葉에 이르러서는 모든 文士들이 더욱 화려한 문장을 좋아해서 모든

41) 엄밀한 의미에서 說話도 作者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民衆多數라는데 있어, 特定作者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개인의 창작의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藝術 특히 文學이 개인의 창작의식이라는 審美的 想像作用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일진대 說話가 그 자체로서 문학작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42) 唐宋以後 作者彌繁……(魯迅: 前掲書, p. 16. 再引用)

글을 空中樓閣式으로 꾸며 책(小說:筆者註)을 한 권씩 만들어 놓았다.⁴³⁾

고 했다.

李德懋에 있어서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小說’을 짓는 과정과 유통과정 까지도 언급하였으니,

일찍이 듣건대 중국에서는 시골 훈장들이 한가히 모여 談話를 하다가 즉석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한 사람이 小說을 지어 부르면 한 사람이 베껴쓰고 몇 사람이 板刻하여 그대로 두세 편을 만들어 서점에 내다 판아 술과 고기를 사서 즐긴다고 한다.⁴⁴⁾

고 했다.

이로써 보자면, 紀昀이 意中에 두었던 대상은 短篇作品이었고(註19 참조), 洪萬宗 및 李德懋 등이 意中에 두었던 대상은 長篇作品이어서 短篇이든 長篇이든 ‘小說’은 특정의 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짐이 확연하니 곧 개인의 作意性에 의해 구성되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작자가 ‘小說’을 짓는 이유 곧 作意性의 本質이 문제될 것이니 이는 실제적으로 ‘小說’을 지었던 作者들의 이에 대한 견해의 피력으로 파악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東洋의 사회에서는 ‘小說’을 ‘作’ 내지 ‘讀’ 함은 별로 떳떳하지 못한 일로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作品의 작자조차도 대다수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작자에 의한 作意性의 본질에 대한 피력이란 文獻上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삼자(評者)가 그 나름대로 해석하는 作意性에 관한 論及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혹간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작자의 이에 대한 論及을 아울러 살펴보면,

43) 洪萬宗：前揭書，卷下

44) 嘗聞 中州村巷學究 閒聚談話 即席欲得酒肉 則一人呼小說 一人寫 幾人刻板 居然成二三篇 賣於書肆 沽酒肉以遊云 (李德懋：前揭書，前揭文)

‘小說’의 作意性에 대한 本質을 파악함에는 순전히 娛樂的인 것으로 파악함과 娛樂 및 世敎的인 것으로 아울러 파악함이 兩立하고 있으니 그 典據는 다음과 같다.

① 순전히 娛樂的인 것으로의 파악.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그런 때문에 小說이란 (中略) 한가 일 좋아하는 자의 소일거리인데 習俗을 이루게 되자 이것을 경정하다시피 하게 되어 드디어 세상길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종묘와 사직까지 자빠뜨리는 데 이르러서(이하 생략)⁴⁵⁾(筆者加點)

라고 했다.

李德懋는 靑莊官全書에서,

심한 것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부연시키고 편벽되고 괴이함을 나타내어 사람들이 재미있어함에만 힘을 써서 수치스러움을 모른다.⁴⁶⁾(筆者加點)

고 했다.

② 娛樂 및 世敎的인 것으로의 아우른 파악.

桓譚은,

小說家は (中略) 거기엔 治身理家를 함에 있어 불만한 辭句가 있다.⁴⁷⁾

고 했다.

梁誠之는 東國滑稽傳序에서,

稗官小說에 이르러서는 역시 儒學을 하는 사람들이 文章으로써 쾌활한 이야기를 만들거나 혹은 見識을 넓힘에 이용하고 혹은 그로써 심심풀이를 삼으니 모두 가히 소용되지 않음이 없다.⁴⁸⁾

45) 洪萬宗 : 前揭書, 卷下

46) 甚者數淫穢 演僻怪 務悅人目 不知羞耻 (李德懋 : 前揭書, 前揭文)

47) 註 8 참조요

48) 至於稗官小說 亦儒者以文章爲劇談 或資博聞 或因破閑 皆不可無者也 (梁誠之 : 東國滑稽傳序)

고 했다.

柳夢寅은 於于野談序에서,

詩와 文은 비록 공교롭기는 하나 民衆이 귀하게 여김은 小說·叢話를 著述함만 같지 못하니 비단 世敎를 보좌하는 것뿐만 아니라 民衆이 역시 보아 즐겁기 있다.⁴⁹⁾

고 했다.

金萬重은 東坡志林에 言及된, 시골의 어릴 아이들이 푼푼히 모은 돈을 합해서 옛이야기를 듣는 광경을 예로 들고서 陳壽의 史傳·司馬光의 通鑑 등을 듣고는 눈물을 흘릴 사람이 드무나 三國故事中の 劉玄德이 敗하였다든 것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曹操가 敗하였다든 것을 들으면 기뻐하였다든, 感興 바로 그 자체가 ‘小說’을 짓는 이유라고 하였다.⁵⁰⁾

그런데, 하나의 작품은 옛날이든 지금이든간에 읽혀지기 위해 쓰는 것이고, 또 읽혀지기 위해서는 讀者의 共感을 얻을 수 있게 써야 하는 것이라면, 그 作意性이 순전히 이야기의 오락성에만 혹은 교훈성에만 치우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소박한 의미로 이야기의 오락성에만 몰두했었다면 우리의 古代小說중의 單談類와 같은 同一 類型의 많은 작품들이 나올리 없었고⁵¹⁾, 또 교훈성에만 몰두하였다면 讀者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던 민중들이 딱딱한 인생의 강의에 심취하였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洪萬宗이나 李德懋의 경우 그것이 곧 ‘小說’을 배척하기 위한

49) 詩文雖工 衆莫之貴 不若著小說叢話 非但裨補世敎 衆亦樂觀 (柳夢寅: 前揭文)

50) 東坡志林曰 塗巷中 小兒薄劣其家所厭苦 輒與錢合聚坐 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頓覺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此其羅氏衍義之權輿乎 今以陳壽史傳 溫公通鑑 聚衆講說 人未必有出涕者 此通俗小說之所以作也 (金萬重: 前揭書, 卷下)

51) 單談類의 작자층이 몰락양반임은 이미 學界에서 定說로 되고 있다. 따라서 ‘作’의 원인이 호구지책에 기인하든, 권토중래를 의식한 權座에의 향수이든 간에 칠저히 儒學으로 주장되었던 이들이 이야기의 오락성에만 몰두하여 그것들을 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드러나는 主題가 忠과 孝임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극단적인 論及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또 金萬重이나 柳夢寅이 실제로 小說作者이었던 사실을 참작한다면, 대체로 우리 東洋의 先人들은 ‘小說’ 作意性의 本質을 오락 및 世敎的인 것에 두었다고 보겠다.

(2) 虛構性

虛構라 함은 作者에 의하여 구성된 하나의 가공적 세계의 표출을 의미하며, 따라서 虛構性을 지닌은 곧 그 이야기가 史實自體의 叙述(野史도 포함)과는 구별되는 文學으로서의 자격을 결정지워 주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미 “可觀者는 九家”라 하여 ‘小說’을 史的인 叙述이나 餘他의 記述과는 구별하여 “可觀者”에서 제외시켰던 班固의 論及에서 그것의 이야기가 전연 가공적일 가능성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기실, ‘小說’이 史實 또는 事實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대대로 몇몇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가공물로서의 ‘小說’의 虛構性을 말한 典據는 다음과 같다.

宋의 歐陽修가 新唐書를 편찬할 때 藝文志 小說類中에 神怪類와 因果類等 원래 史部 雜傳類에 속해 있던 것을 첨가시켜 이로써 史部에는 드디어 鬼神傳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⁵²⁾

紀昀은,

唐·宋 이후에 作者가 더욱 많아져 그 가운데에는 欺誦하여 眞實을 잃었거나, 妖妄하여 귀를 眩惑케 하는 것이 실로 적지 않다.⁵³⁾

고 했다.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그런 때문에 저 벼슬하는 관리들까지도 정치하는 것은 제쳐 놓고 무슨 신기

52) 魯迅: 前揭書, p. 15. 참조

53) 唐宋以後 作者彌繁 中間誣謬失眞 妖妄焚聽者 因爲不少 (上揭書, p. 16. 再引用)

한 이야기에만 귀틀 기울이다가 그 속에서 한가지 조건을 얻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말 없는 말 주워 모아 여러편의 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때문에 小說이란.....⁵⁴⁾

라고 했다.

李德懋는 靑莊官全書에서,

小說에는 세가지 그릇됨이 있는데 虛를 세우고 空을 추구하여 귀신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小說을 짓는 사람의 첫째 그릇됨이요(이하 생략)⁵⁵⁾

라고 했다.

물론 이들이 예술로서의 문학을 이해하여 ‘小說’이야기의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했다고는 볼 수 없고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렇지만 이들이 ‘小說’을 공박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小說’이야기의 내용이 史實(事實)과는 동떨어졌다는 점에 있었던 것이므로 최소한 ‘小說’은 短篇이든 長篇이든 가공적인 이야기란 사실을 제공해 주고 있는 충분한 典據가 된다.

그렇다면 虛構와 史實(事實)과의 구별한계가 문제될 것이니 이 문제는 곧 虛構性的 本質 문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불행히도 이 구별한계에 대한 論及을 文獻上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내용이 허황되다 하여 ‘小說’로 거론되었던 작품의 성격으로 이 구별한계를 짐작할 수는 있다. 이 경우, 傳奇類나 志怪類의 작품같이 史實(事實)과 동떨어진 전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허황됨의 극단에 서는 것들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소재나 인물을 역사에서 취한 演義類小說이 문제가 된다. 즉 왜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역사적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演義類조차도 허황되다 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三國志演義나 水滸傳같은 작품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나 핵

54) 洪萬宗：前揭書

55) 小說有三惑 架虛鑿空 談鬼說夢 作之者一也 (李德懋：前揭書，前揭文)

심적으로 활동하는 주인공은 모두 역사상의 실제 사건이요 인물이다. 따라서 전연 기적이랄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인공들의 武勇을 나타냄에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우수한 인물로서의 인상은 주어도 초인간으로서의 인상은 주지 않는다. 또한 모든 사건의 해결과 극복이 인간의 힘과 지략으로 이루어지지 초월자의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虛構와 史實(事實)의 구별한계를 叙述의 주안점의 차이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곧 叙述의 주안점이 이야기구성과 그것의 전달에 있었는가, 아니면 史實(事實)에 대한 증명·평가와 그것의 전달에 있었는가의 차이에 그 구별한계를 두어야겠다.

野史로서의 著述意識이 뚜렷하였던 三國遺事에 있는 金現感虎이야기의 叙述에 대하여 살펴보자. 金現感虎가 마치 傳奇에 필적할 만큼의 이야기구조를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新羅 元聖王 때를 배경으로 金現과 申屠澄의 범에 얽힌 사건을 叙述한 것으로 내용도 다분히 기적적이다. 그러나 一然은 그 기적적인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에 叙述의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史實의 증명 및 史家로서의 평가와 그 전달에 叙述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金現感虎 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들어 있는, 이야기의 전개와는 관계가 없는 다음과 같은 一然의 叙述者로서의 개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한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그 방법을 쓴다.⁵⁶⁾

金現이 죽을 때 지난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붓으로 적어 傳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論虎林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일컬어 온다.⁵⁷⁾

이 事蹟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건대 절을 돌리는 사람을 감동시켰고 하늘에서 외쳐 악을 징계하려 하자 (이하 생략)⁵⁸⁾

56) 今俗亦用其方 (一然：三國遺事，卷第五，感通第七，金現感虎)

57) 現臨卒 深感前事之異 乃筆成傳 俗始聞知 因名論虎林 稱于今 (上揭書，上揭文)

58) 詳觀事之終始 感人於旋邊佛寺中 天唱徵惡…… (上揭書，上揭文)

그러나 ‘小說’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전개 중에 작자가 史實임을 증명하고 평가하고자 하여 개입하는 일이 없다.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오직 통일성 있게 전개될 뿐이다. ‘小說’의 개중에는 “外史氏 가로대……” 등의, 이야기 전개 끝에 오는 寸評이 따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寸評이 이야기가 史實(事實)임을 증명한다든지 혹은 評價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는 오직 문장가들의 상투적 습관에 기인하는, 作者 나름대로의 主題의 강조이기 때문이다.

5. 結 語

筆者는 지금까지, 文學用語는 그 歷史性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관점 아래, 한국과 중국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東洋에서의 ‘小說’칭호의 歷史的 用例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가하여 왔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곧 우리 나름대로의 ‘小說’이란 장르이름의 개념정리에 족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小說’이란 칭호가 문학상의 작품을 지칭하는 起源的인 用例는 桓譚과 班固에서 비롯된다.

② ‘小說’이란 칭호는 원래 虛構的인 短篇作品을 지칭한다.

③ ‘小說’이란 칭호는 演義類의 대두에서 비롯하여 虛構的인 長篇作品을 包括한다.

④ ‘小說’은 娛樂과 世敎的인 면을 아울러 본질로 하는 개인의 作意性을 그 屬性으로 하는데, 바로 이 作意性으로 인하여 ‘小說’은 說話와 구분된다.

⑤ ‘小說’은 또한 架空物이라는 虛構性을 그 屬性으로 하는데, 바로 이 虛構的인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에 敘述의 主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에서 ‘小説’은 歷史의 叙述과 구분된다.

이로써, 우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볼 때, 東洋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문학상의 ‘小説’이란 用語는 作意性과 虛構性을 그 屬性으로 하는 일체의 長·短篇作品을 포괄하는 類概念的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 경우, 모든 작품이 이야기구조를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이제 本稿에서 論證된 이러한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 한국의 小説史의 정리나 ‘小説’에 관한 제반 논의에 있어서는 ‘小説’이란 用語의 類概念的인 특성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작품을 중심으로 본 이야기구조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색을 미처 밝혀내지 못한 점은 本稿가 의도하였던 바의 결과를 아직은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남겨 놓는 것이기에 이를 해결함이 다음의 과제가 됨을 밝혀 둔다.